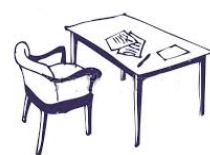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 발행인의 데스크



## 주 캐나다 초대 한국대사 백선엽 장군과 캘거리 한인회 창설

### 1967년 12월, 캘거리 한인회 창설 지원금 미화 \$20

지난 주 (7월17일) 코리아 알버타 저널에 머릿 기사로 대한민국 주 캐나다 초대 대사 백선엽 장군의 캘거리 첫 번째 방문과 한인회 창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가자 많은 캘거리 동포들이 흥미롭게 읽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인회 창설에 얽힌 이야기 가운데 바로 잡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캘거리 초대 한인회장직을 맡아 봉사하신 캘거리 대학 물리학 교수였던 김창영 박사가 캘거리에서 한국인 이민 1호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 캐나다 초대 한국대사로 부임한 백선엽 장군이 캘거리에 한인회를 창설하라는 권고를 해온 때가 1967년이었고 캘거리 고참 이민자로 알려져 있는 최병기씨는 한인회가 조직되고 1년 후에 백대사가 캘거리 동포들을 방문하러 왔다고 밝히면서 백대사가 캘거리에 와서 직접 한인회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사진들을 보여 주며 설명했다. 캘거리에도 한인회를 조직하라는 대사관의 연락을 받고 "캘거리 동포 수효는 20 ~ 30명 안팎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없더라도 가족들처럼 잘 내고 있습니다."라는 답을 보내자 그러나 한국 대사관과 캘거리 거주 동포들과의 공식 장구가 있어야 된다는 면서 한인회 조직을 위한 지원금으로 그 당시 미화 20달러를 수표로 부쳐 왔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꽤 큰 지원금이였다고 최병기씨가 기억을 더듬었다.

그 당시 한인회 창설 멤버로는 초대 한인회장으로 추대된 김창영 박사, 오피홀부



회장, 최병기 총무 그리고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인화공대 학장직을 맡은 이의춘 박사, 등 등이 있었고 기회만 닿으면 동포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하셨던 염순복 장로님이 함께 하셨던 것으로 최병기씨가 증언했다. 이렇게 해서 캘거리 한인회가 창설된 다음 해인 68년 여름에 백선엽 대사가 캘거리 옛 공항

에 첫 발을 디뎠다고 한다. 그때 마중 나갔던 사람들이 김창영 박사와 최병기씨 이렇게 두 사람으로 기억된다고 더듬었다.

캘거리 공항에 마중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차린 백 장군의 첫 마디는 우렁찬 음성으로, "내가 백선엽 장군이다!!!"라고 소리쳤다고 한

다. 지난 주 신문에 실린 사진에 당시 총무였던 최병기씨가 들어있지 않은 이유를 묻자 "내가 사진을 찍어 주느라고 지난 주 신문에 나간 사진에 내가 안 들어 있던 것이고 사진을 찍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카메라를 넘겨주고 제일 왼쪽 앞자리에 썬 글래스를 쓰고 앉아서 포즈를 취한 안경 쓴 청년이 바로 나

야!" 라고 설명하는데 전혀 달지 않은 젊은이가 자신이라고 우기지 않는가?!

한인회를 조직할 때 참여했던 분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보여 주면서 "지난 주 신문에 실렸던 백선엽 장군과 캘거리 동포들이 미네와카 호수에서 찍은 사진 오른쪽 끝에 아이

를 안고 서신 양재설 장로님은 캘거리 한인회가 이미 창설된 이후에 이민을 오셨고 제2대 캘거리 한인회장으로 봉사하신 분이시라고 설명을 덧붙이면서 "지난 주 당신 신문에 나간 백선엽 장군의 캘거리 기사 정정에 도움이 될까 해서 알려 주니 참작하기 바란다."며 필자를 바라보며 씩웃 웃었다.

캘거리 한인회 조직이 탄생되기 전에 이미 캘거리에 와서 살던 우리들의 선배인 그 선구자들은 모두 어디로 떠나셨을까?

"지구촌"이라는 단어에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캘거리 우리 동포들은 캐나다 시민권을 손에 쥘까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진 위 설명: 1968년도 여름 백선엽 캐나다 대사 캘거리 방문 기념사진.

맨 왼쪽 서있는 이가 초대 회장 김창영 박사, 앉아 있는 이가 초대 총무 최병기, 오른쪽 끝에 서 있는 이가 2대 한인회장 양재설, 왼쪽 두 번째부터 대사관 공보관 김형수, 홍승만, 이재호, 미세스 양, 미세스 김형수, 백선엽 초대 대사, 이순교, 미세스 홍승만, 전길수, 미세스 전길수, 오른쪽 하단 어린이가 아이스하키팀, 미세스 이재호, 미세스 김창영, 미세스 송중관, 어린이들은 김창영 박사, 양재설씨, 김형수씨 자손들\*

사진 아래 설명: 1967년 12월 캘거리 한인회 발기총회 회원 일동. 부회장으로 선출된 오재호씨는 사진 촬영하느라고 이 사진에 들어가지 못했다.

## 여성은 캐나다보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더 오래사는데, 남성은 꺼꾸로

40세 캐나다 여성 잔여수명 45.1세  
60세 캐나다 남성 잔여수명 23.5세

2018년도에 캐나다에서 태어난 여성은 한국에서 태어난 여성보다 기대수명이 짧지만, 남성의 경우는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0'에서 2018년 기준 캐나다 출생 여성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은 84.1세였으나 한국은 85.7세로 나왔다. 반면 남성은 캐나다 출생 시 79.9세이지만 한국 출생 시 79.7세로 캐나다가 더 길었다.

OECD 국가 중 2018년 출생 여성의 기대수명 순위에서 한국은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길었으나, 캐나다는 17위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다. 세계에서 최장수 국

가인 일본은 2017년도 기록까지만 나와 있어 비교 할 수 없었다.

남성의 경우는 캐나다와 한국이 각각 13위와 15위를 기록해 중간보다 약간 상위에 속했다.

만약 2018년 기준으로 40세인 여성의 잔여수명에서 캐나다는 45.1년, 한국은 46.5년이었고 60세인 경우는 캐나다와 한국이 26.5년과 27.5년으로 한국이 더 길었다. 하지만 80세의 경우는 캐나다가 10.8년, 한국이 10.3년으로 캐나다가 더 길었다.

40세 남성의 잔여수명에서 캐나다는 41.6년 한국은 40.8년, 60세 남성은 23.5세와 22.8세, 그리고 80세는 9.1년과 8.1년으로 캐나다가 더 길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인지



율에서 한국(32.0%)이 낮을 반면 캐나다(88.6%)는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의 경우 캐나다는 80.2% 역시 뉴질랜드(86.6%) 이어 2번째로 높은 반면 한국은 22.3%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15세 인구 1명당 음주량에서 캐나다는 8.2리터였고 한국은 8.5리터로 적은 편에 속했다.

주요 의약품의 소비량 중 항우울제의 1000명 당 일일

소비량(DID: Defined daily dosage(DDD) per 1000 inhabitants per day)에서 OECD 평균은 64.3DID인데, 캐나다는 114.4DID로 2배 가깝게 많았으며, 한국은 약 1/3 수준인 21DID였다.

항생제는 OECD 평균은 18.1DID인데, 캐나다는 17DID이고 한국은 29.8DID로 한국의 항생제 남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자원에서 인구 1000명 당 의사수에서 OECD 평균 3.5명인데, 캐나다는 27

명에 불과하고, 한국은 24명으로 더 적었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등 복지 선진국일수록 의사수가 많았다.

간호인력에서 캐나다는 10명으로 OECD 평균인 8.9명보다 많았으나 한국은 7.2%로 역시 의료 인력은 부족했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에서 OECD평균은 6.8회인데, 한국은 16.9회로 자주 의사를 찾았고, 캐나다는 6.7회로 평균에 가까웠다.

또 병상 수는 OECD 평균 4.5개인 반면 한국은 12.4개로 3배 가깝게 많았으며, 캐나다는 2.6개로 절반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요양병원과 장기요양 시설 침상 수에서 OECD 평균은 46.9개 인데 캐나다는 56.9개였으며, 한국은 60.9개로 두

나라 모두 평균보다 많았다. 의료장비에서 인구 백만 명당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에서 캐나다는 14.82대(2019년 예상치)였고 한국은 30.1대였다. OECD 평균은 17대였다.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 OECD 평균 27.4대인데 캐나다는 10.35대(2019년 예상치)이고 한국은 38.56대였다.

PE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장비에서 캐나다는 1.49대(2019년 예상치)인 반면 한국은 3.78대로 2.5배 많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이나 캐나다의 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OECD 국가 중 적은 편이지만 캐나다는 건강하다는 마음과 자연환경, 그리고 많은 침상 수로 기대수명을 늘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 대비 많은 첨단의료장비와 자주 의사 진료를 통해 기대수명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